

제 248호 · 2014년 3월 19일
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

KMI

국제물류위클리

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

| CONTENTS |

물류정책·사업동향

1.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의 초대형화 지속 예상
2. Russian Railway Logistics, 중국-독일 간 콜드체인 시범서비스 실시
3. 이란, 경제제재 해제 시 중동의 주요 물류거점으로 부상 전망
4. 중동지역, 미래 글로벌 물류센터로 각광

물류시장동향

1. 중국 전자상거래 최대 기업인 아리바바(阿里巴巴), 자국물류기업 인수
2. 글로벌 물류회사 DP-DHL, 우편사업 부문이 지난해 기업성장 주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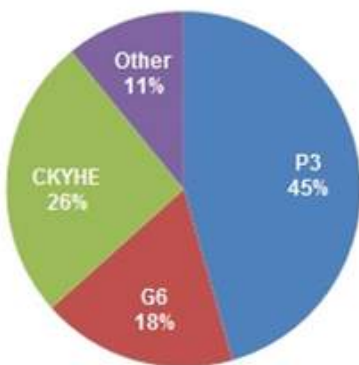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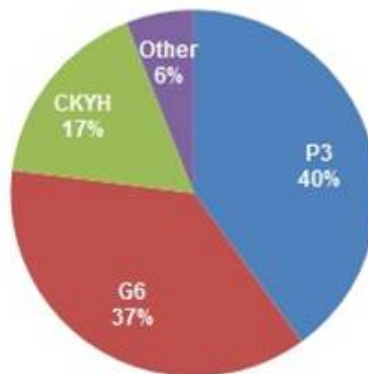
□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의 초대형화 지속 예상

- 글로벌 대형 선사들은 EU 등 규제당국의 승인 이전이지만, 초대형 얼라이언스(Mega-Alliance) 체제를 지속 추진
 - 최근 Evergreen은 2014년 3월부터 아시아-유럽 항로에서 CKYH와 공동운항하고, G6의 경우에는 아시아-북미서안항로, 북유럽-미동안 항로의 새로운 운항계획 및 기항지를 발표
 - 이는 2014년 중반부터는 3개의 초대형 얼라이언스(P3 : Maersk Ling, MSC, CMA-CGM, G6: Hapag-Lloyd, NYK, OOCL, HMM, APL, MOL, CKYHE : Coscon, K Line, Yang Ming, Hanjin, Evergreen)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
-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계획들은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이며, 특히 EU의 컨소시엄 가이드라인인 시장 점유율 최대 30%에 대한 승인여부가 최대 이슈로 부상
 - 아시아-유럽 항로에서 CKYHE의 시장 점유율은 26%로 예상되는 반면, P3는 45%가 될 것으로 예상
 - 북유럽-미동안 항로의 경우 G6가 주 5항차 서비스를 확정하였도 승인여부 판단에 애로
- 결론적으로 EU의 규제당국은 시장점유율 30%와 상관 없이 초대형 얼라이언스의 운영을 승인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, 향후 얼라이언스의 대형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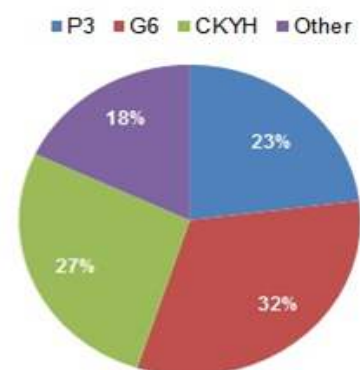
[아시아 - 유럽항로]



[북유럽 - 미동안항로]



[아시아 - 북미서안항로]



자료 : Drewry Maritime Research, 2014.3.

김근섭 부연구위원 (☎ 02-2105-2846, gskim@kmi.re.kr)

□ Russian Railway Logistics, 중국-독일 간 콜드체인 시범서비스 실시

- 러시아 철도회사(Russian Railways; RZD)의 자회사인 Russian Railways Logistics (RZDL)가 중국-독일 간 콜드체인 철송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고 발표
 - RZDL은 자회사인 위신오우(渝新欧, YuXinOu)와 협력하여 중국 충칭(Chongqing)에서 독일 뒤스부르크(Duisburg)까지 전자제품을 저온 상태로 수송하는데 성공
 - 화물을 냉장 컨테이너에 싣고 통합 디젤 발전기(integrated diesel generators)를 이용하여 최적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수송
 - 중국, 카자흐스탄, 러시아, 벨라루스, 폴란드 및 독일까지 총 6개국을 통과하는데 걸린 수송시간은 16일이 소요
 - RZDL의 영업담당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하이테크 및 기타 화물의 콜드체인 수송에 대해 효율성과 신뢰성을 자신한다고 밝힘
- 위신오우는 2012년에 Transport Holding Chongqing (CQCT), China Railway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(CRIMT), RZDL, Schenker China Ltd. 및 JSC Kaztransservice 등이 합작으로 중국 충칭에 설립한 회사
 - 위신오우의 RZDL 지분율은 16.3%이며, 유럽-아시아 구간의 포워딩, 세관 통관,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중
- RZDL은 유럽과 아시아 구간의 철도화물 수송의 잠재성이 높다고 평가하고,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중
 - RZDL은 기존 연구를 인용하여 EU-중국-EU간의 통과화물(Transit Cargo)이 2020년에 125만 TEU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
 - 2013년에도 시베리아, 극동, 터키, 카자흐스탄, 아르메니아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
- 또한 RZDL은 위신오우 뿐 아니라 통과화물(Transit Cargo)을 주로 취급하는 Far East Land Bridge (FELB)의 지분 20%도 인수

자료 : www.eft.com, www.railwaypro.com, 2014.3.4.

송주미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72, jmsong@kmi.re.kr)

□ 이란, 경제제재 해제 시 중동의 주요 물류거점으로 부상 전망

- 이란은 뛰어난 지정학적 위치 및 풍부한 지하자원을 매개로 높은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, 국제 사회의 경제적 제재로 경제발전의 어려움에 직면
 - 이란은 세계 20위권에 근접한 경제수준 및 중동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큰 경제 규모 보유하고 있으며, 석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, 탄탄한 중산층 및 높은 교육수준의 노동력, 그리고 다양한 제품의 생산시설을 보유, 서방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매력적 투자처
 - 그러나 이란의 핵문제로 인해 국제사회가 석유산업 및 기업 간 금융거래 등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어, 국가 경제발전 도모 애로
- 2013년 11월, 유럽연합, 미국, 중국, 러시아와 이란 간 핵무기 개발 유보를 전제로 제재 해제 협의 개시
 - 추가적인 논의가 2014년 봄까지 이뤄질 것이며, 이를 위해 유럽연합의 해외정책국장인 Baroness Ashton씨가 이란을 방문
 -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또는 완화 시 이란의 경제는 활성화 되어 빠른 시간 내에 중동지역의 주요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전망
- 특히 운송 및 물류의 관점에서 이란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 물류허브로서 매우 높은 잠재력 보유
 - 이미 이란은 동서 및 북해축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를 살리기 위해 국제물류흐름을 활용하는 주요계획 수립
 - 제재 해제 시 이란은 아시아와 유럽 및 독립국가 연합(CIS) 간 기존 운송경로에 대한 대체경로 제공 가능
 - 철도 및 카스피 해를 통한 단거리 해송을 활용, 수에즈 운하를 우회할 경우 상당한 시간 및 비용 절감 예상¹⁾
 - 특히 차바하르 항은 호르무즈 해협 동측에 위치하고 있어, 호르무즈 해협의 병목을 피해 철도와 연계 시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고도 인도에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 수출이 가능한 경로 개척 가능
- 이란이 이처럼 국제물류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항만 및 철도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필요
 - 현재 이란에서 가장 큰 항만인 이란 남부에 위치한 Shahid Rajaee(과거 Bandar Abbas) 항조차 국제적 기준의 대형선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, 인근 두바이에서 환적 수행

1) 40%의 시간 및 30%의 비용 절약 예상

- 현재 차바하르(Chabahar) 항은 인도의 지원을 받아 확장 계획 중
- 철도인프라 구축 역시 중요하여 이란정부는 국제 화물흐름 증진을 목표로 자국 철도 네트워크 개선에 6억 5백만 USD를 할당
- 철도연결망은 2014년 말 완공이 목표이며, 완공 후에는 연간 5백만 톤의 화물이 철송을 통해 유럽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수송될 것으로 전망되며, 이란의 국제관계 개선 시 1천 2백만 톤까지 증가 예상

<수에즈 운하 - 이란 차바하르 항 위치>



자료: maps.google.com

자료 : johnmannersbell.com, 2014.3.1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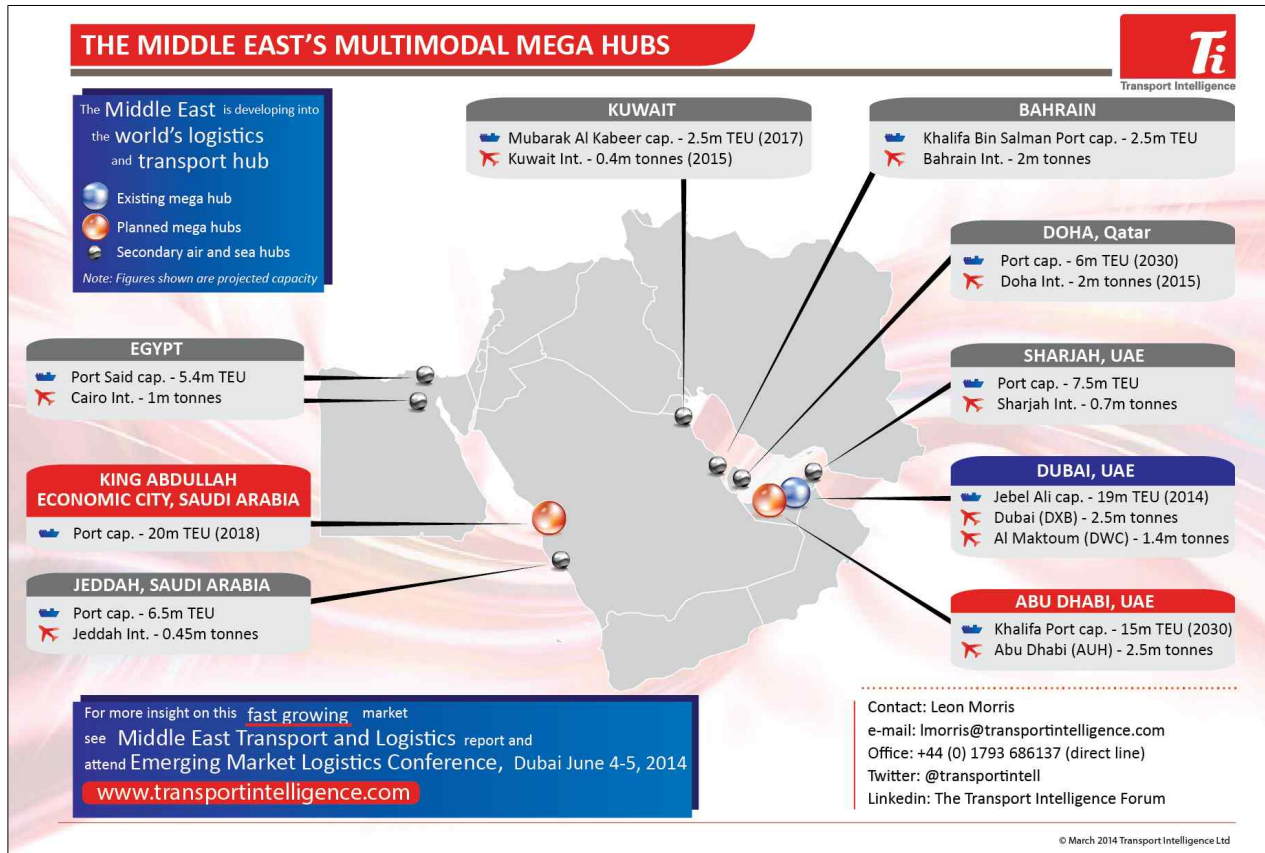
전형모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17, hmjeon@kmi.re.kr)

□ 중동지역, 미래 글로벌 물류센터로 각광

- 중동지역이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부각
 -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중동지역은 그동안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항공기 재급유 장소로 활용되거나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해운의 중심지 역할 수행
 - 과거 물동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허브앤스포크(Hub and Spoke) 전략에 따라 개발이 미진했지만,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최신 시설, 낮은 부패도, FTZ지정, 영공개방주의, 수월한 통관절차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게 되면서 물류 중심지로 급부상
 - 최근 들어 Sea to Air 화물이 급증하고 있는데, 해상을 통해 중동지역으로 운송된 화물을 환적하여 항공을 통해 유럽으로 배송하는 형태
 - 걸프 국가들은 수송부문과 물류자산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상대적으로 항공화물 생산성이 낮은 인도에서는 때때로 해상운송을 통해 두바이를 거쳐 항공으로 유럽까지 운송
 - 하지만 이러한 화물흐름은 유럽행 화물을 가중시켜 결론적으로 화물의 불균형을 초래해 유럽에서 중동으로 향하는 항공편의 화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도 초래
 - 두바이 국제공항은 56개 달하는 수출입화물 및 부패성화물용 트럭 도크가 있으며 Sea to Air 전용 도크도 7개를 보유하고 있고 두바이 공항과 Rashid, Jebel Ali항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6시간 내에 상호간 컨테이너 보세 운송이 가능
 - 결론적으로 중동지역을 경유하면 수송시간을 일주일이상 단축 가능
- 중동지역 물류센터의 제조기업 유치 증가
 - 최근 많은 제조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두바이에 있는 Jebel Ali 자유무역지대와 같이 물류시설과 인접한 곳에 위치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증가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
 - 예를 들면 일본 제조기업인 Cannon은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45개 시장에 대한 물류 센터로 상기 지역을 선택했고, 물류센터를 통해 95%에 달하는 제품의 지역화작업과 조립 등 부가가치 서비스를 수행한 다음 해상으로 운송
 -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기업인 Huawei는 최근 지역 물류센터를 두바이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는데, 예정지인 Jebel Ali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기존보다 해상수송시간을 단축 할 수 있을 전망
 - 처음에는 물류센터를 통해 걸프 국가 및 파키스탄에만 수송을 시작하지만 향후 케냐, 탄자니아 및 기타 아프리카까지 확대할 전망
- 중동지역의 기업 친화적인 사고방식과 해상 물류인프라도 물류활성화의 동인
 - 최근 물류센터로서 중동지역이 각광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기업친화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인데, 최근 발표된 '2014 Agility Emerging Market Logistics Index'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 파악이 가능

- 카타르, 아랍에미리트, 오만, 사우디 아라비아, 쿠웨이트, 요르단까지의 중동지역이 시장 공존 (compatibility) 부문에서 비즈니스 및 교역에 호의적인 결과가 도출
- 수송의 질적 인프라와 해상 수송의 범위를 나타내는 연결성(Connectedness)부문에서 아랍 에미리트, 오만, 사우디 아라비아, 바레인, 카타르가 10위권 내에 진입해 있는 상태

< 중동지역의 물류 인프라 확장 >



자료 : www.transportintelligence.com

- 물동량 성장에 따른 중동지역 물류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집중
 - 최근 대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해상 및 항공화물 운송을 중동지역의 물류 인프라가 계속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
 - 현재 중동지역 주요 항만의 연간 처리물량은 4천만 TEU 수준이나, 예정된 개발 계획이 진행 된다면 10-15년 이후 1억만 TEU 수준으로 증가하며, 마찬가지로 중동지역 주요 공항의 연간 처리 물량은 현재 8백만 톤이지만 2020년까지 1천 4백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
 - 일부 분석에 따르면 다양한 서브 공항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에서는 오직 두 개의 공항만이 글로벌 규모의 중심 공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, Dubai공항과 Abu Dhabi공항이 그 대상이 될 전망

- Jebel Ali항은 지금까지 중동지역의 가장 큰 항만으로, 인접한 Jeddah항의 거의 3배 규모이며 Dubai 국제공항은 물론 최근에 개발되어 아직 규모는 작지만 향후 60만 톤 규모의 처리물량을 천 2백만 톤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인 Dubai World Central Al Maktoum 국제공항과도 연결 가능
- Abu Dhabi공항과 연계된 Khalifa항도 현재 개발중으로 2030년까지 천 5백만 TEU로 처리물량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, 제조와 물류시설이 포함되는 Khalifa 공업지대(KIZASD) 개발도 진행될 예정
- 중동지역은 글로벌 물류센터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전망
 - 중동지역의 물류센터들은 지역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아프리카, 중앙아시아, 인도 및 파키스탄 시장의 부족한 수송 인프라 및 서비스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
 - 이는 중동지역의 물류센터가 지역기반의 배송기지 역할을 넘어 아시아, 유럽, 혹은 북미에서 출발한 화물이 경유하는 관문역할도 수행한다는 의미
 - P2P 운송은 때때로 혼잡이나, 고비용, 부패 등으로 운송에 어려움을 겪지만 중동 물류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
 - 또한 중동지역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직 교통인프라가 개발되지 않았으나 급성장하는 신규 시장인 독립국가연합(카자흐스탄, 투르크 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등)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도 보유
 - 따라서 제조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의 배송전략을 강화할수록 신뢰성 높은 중요 물류센터로서의 중동지역 물류센터들의 지위는 더욱 강화될 전망

자료 : www.transportintelligence.com, 2014.3.13.

이홍원 연구원 (☎ 02-2105-2897, hongwon@kmi.re.kr)

물류시장동향

□ 중국 전자상거래 최대 기업인 아리바바(阿里巴巴), 자국물류기업 인수

- 아리바바가 중국 물류기업인 深圳市一达通(Yidatong, Onetouch)²⁾의 전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두 기업의 합병 완료
 - 이에 따라 Yidatong은 중국 국내 최초로 수출입물류업무와 전자상거래의 물류업무를 병행하는 중소기업으로 탈바꿈
 - 통관, 운송, 보험, 외환, 세금환급, 융자, 인증 등의 전반적인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리바바의 입점기업(공급상)들에게 서비스 비용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아리바바 입점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 가능
- 아리바바는 이미 B2B사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중간업자를 통한 판매시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 확대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시장형성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,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증대를 위해 물류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운송 서비스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
 - 따라서 Yidatong의 국제물류 종합서비스는 아리바바의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
자료 : tech.hexun.com, 2014.3.13.

전혜경 연구원 (☎ 02-2105-2982, saeii@kmi.re.kr)

□ 글로벌 물류회사 DP-DHL, 우편사업 부문이 지난해 기업성장 주도

- DP-DHL의 전통적 사업분야 중 하나인 우편사업이 지난해 DP-DHL의 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남
 - 2013년 DP-DHL의 우편 물량은 지난해 대비 7.4% 증가하며, DP-DHL 전체 물량의 약 26%를 기록하였으며, 우편사업 부문의 수익 역시 지난해 대비 약 3.4%가량 증가하였고, EBIT는 지난해 대비 약 17% 증가한 €1,226m을 기록
 - 특송사업 부문의 경우, 'TDI³⁾'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, 미조정수익은 전년대비 약 0.5% 감소하였으나, 독일 내 일부 특송사업 부문의 매각을 통해 EBIT는 약 2.1%가량 증가
 - 포워딩사업 부문은 전년대비 항공화물 물량이 약 4.8%, 해상화물 물량이 약 1.2% 감소하였으며, 수익과 EBIT 역시 전년대비 각각 약 5.3%와 6%씩 감소
 - SC⁴⁾부문의 경우, 자동차 및 헬스케어 업체들과의 계약이 증가하는데 힘입어, EBIT가 전년대비 약 5.3% 증가한 €441m 기록
- 향후 DP-DHL의 성과는 계약물류사업 부문 보다는 포워딩사업 부문에 달려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특송사업 부문보다는 우편사업의 약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자료 : www.transportintelligence.com, 2014.3.13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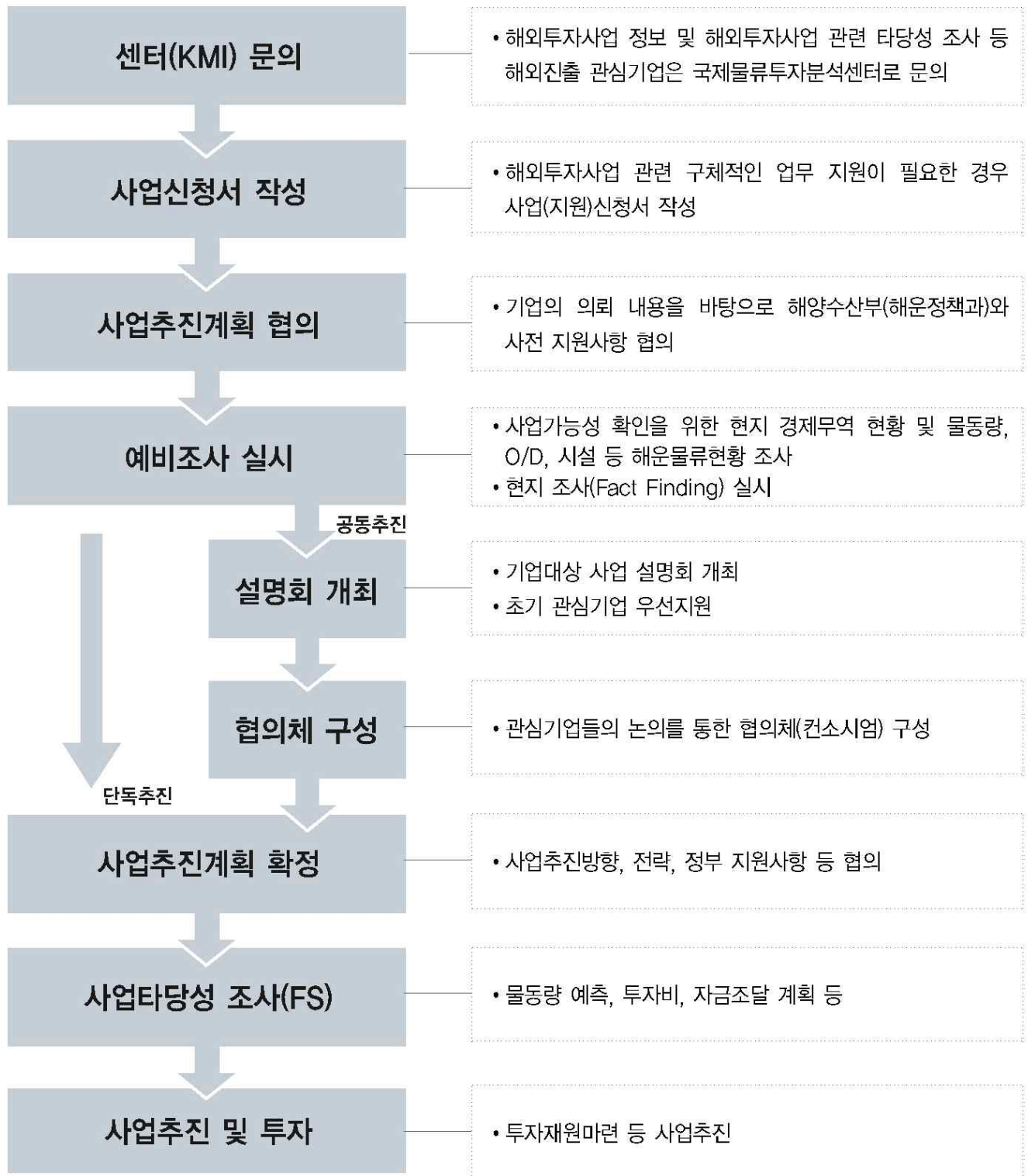
민경창 연구원 (☎ 02-2105-2741, kcmmin0525@kmi.re.kr)

2) 심천시정부와 합작하여 설립된 물류기업으로 영문 기업명은 Onetouch임

3) Time Definite International

4) Supply Chain

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